

# SAC ON SCREEN 마술피리

작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대본** 에마누엘 쉬카네더  
 원작 크리스토프 빌란트의 동화집 <지니스탄> 중 <룰루 또는 마술피리>를 비롯한 여러 동화와 대본 참고  
**초연** 1791년 빈 비덴 극장 **지휘** 임현정·구모영 **연출** 이경재 **합창** 지휘 구천  
**무대** 정승호 **의상** 이주희 **조명** 김민재 **영상** 김보슬 **분장** 구유진 **소품** 노주연  
**타미노** 김우경 **파파게노** 공병우 **파미나** 박현주 **베이스** 전승현 **밤의 여왕** 서활란  
**모노스타토스** 김병오 **파파게나** 이세희 **국립합창단**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기획·제작** 예술의전당 **무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독일어 노래, 한국어 대사, 한글 자막

WWW.SAC.OR.KR/SACONSCREEN

## 모차르트,

그의 마법의 손길에서 태어난 동화 같은 오페라 <마술피리>  
 미지의 세계에서 만나는 모차르트의 음악, 그 안에 숨겨 놓은 수수께끼를 풀어라.

밤의 여왕의 아리아로 대표되는 오페라 <마술피리>는 시공과 세대를 초월한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과 유쾌함이 한껏 담겨있는 작품이다. 타미노 왕자가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긴 여정에 함께하는 유쾌한 새잡이꾼과 신기한 마술피리, 밤의 여왕과 지혜의 자라스트로가 등장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 안에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는 모차르트의 철학과 심오한 사상은 어른들에게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대사가 중심이 되는 모차르트 독일어 오페라(징슈필 Singspiel)로, 듣기 쉬운 음악들과 아름다운 아리아, 진지한 종교음악 등이 한 작품에 녹여져 있어 다채로운 오페라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든 대사를 한국어로 처리하여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즐기는 징슈필의 묘미를 살린다.

### SYNOPSIS

이집트의 왕자 타미노는 밤의 여왕으로부터 악당 자라스트로에게 파미나 공주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타미노는 마술피리를 받아 새잡이 파파게노와 함께 공주를 구하러 간다. 왕자 공주를 가둔 자라스트로가 악당인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자라스트로는 의로운 철학자였음이 밝혀지는데...

